

‘명랑만화’ 윤승운 화백

‘맹꽁이 서당’ 애니메이션 초대전

6월 20일까지 동신대 문화박물관

명랑만화의 대부 윤승운(72) 화백은 40대 들에게는 이름만 들어도 자연스레 미소지어 지는 그런 존재다. 그의 대표작 ‘맹꽁이 서당’은 70~80년대 유년 시절을 보낸 이들에게 큰 즐거움을 안겨줬다.

그가 지난 20일 나주를 찾았다. 동신대 문화박물관에서 6월20일까지 열리는 ‘맹꽁이 서당 윤승운 선생 애니메이션 초대전’ 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맹자·공자 합쳐 ‘맹꽁이 서당’ 그렸지요”

이날 경기도에서 내려온 윤 화백은 “힘들지 않았느냐”는 기자에게 “경기도에서 나주까지 3시간 반이면 너무 짧은 것 아니냐”라고 답했다.

윤 화백은 경기도 남양주시 한 마을에서 배과수원을 돌보고, 유기견 14마리를 기르면서 생활하고 있다. 그는 만화를 막 시작하고 밥벌이를 못할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에 ‘소나 키우며 살자’며 남양주에 작은 땅을 샀다. “그 때는 돈도 없었는데 왜 샀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이 윤 화백의 말이다.

1982년부터 8년간 보물섬에 ‘맹꽁이 서당’을 연재했던 그는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인물만화 ‘맹꽁이 서당 고려시대’를 발간했으며, 지난해부터 잡지 ‘생각쟁이’에 ‘맹꽁이 서당 논어’편을 다시 연재하고 있다. 적지 않은 나이에도 만화를 열정적으로 그리는 원동력이 뭐냐고 묻자, 답이 의외였다.

“원동력, 그런 것이 어디 있냐? 원래 내 성격이 내성적이고 못났다. 젊을 때는 ‘쪼다’라는 말도 많이 듣고, 살면서 좌절감과 열등감도 심했다. 하지만 사실 노력을 했다.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이유는 게을러서다’라는 말이 있다. 나는 남보다 뒤떨어지니깐 없는 머리를 쥐어 짜면서 만화를 그렸다. 남들처럼 미래, 흥행대도 못 나왔다. 하지만 노력을 하다 보니 되더라.”

함경북도에서 태어난 그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한 일간지에 만화를 투고하기 시작하면서 만화가의 길을 걸었다. 윤 화백은 “한 신문에 30차례 넘게 투고를 하니 겨우 한 작품이 뽑혔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후 각종 잡지와 신문 등에 만화를 연재하면서 신문수, 이정문, 박수동 화백과 우리나라 명랑만화를 개척했다. ‘맹꽁이 서당’을 비롯해 ‘두심이 표류기’, ‘요철 발명왕’, ‘금붕어’ 등이 그의 대표작이다.

윤 화백은 학습만화 분야의 원조다. 맹꽁이 서당에서 다른 내용들도 교훈과 함께 잔잔한 감동을 준다.

“그런 것이 어디 있냐? 만화가면 만화가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문교부 국장이 만화가들을 불러 ‘만화는 교육적이어야 합니다’라고



명랑만화의 대부 윤승운 화백이 20일 동신대 문화박물관에서 반세기 만화인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1982년부터 ‘보물섬’ 등에 32년 째 연재 “못배운 열등감에 머리 쥐어짜며 그렸죠 50대에 한학 배우고 70 넘은 지금도 창작활동 어릴 때 ‘명심보감’ 가르치면 배움 평생 갈 것”

말한 적이 있다. 만화는 만화적이어서 교육적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어야 한다. 내가 워낙 배운 것이 없어 탈출구를 찾다가 보니 역사를 소재로 만화를 그렸을 뿐이다. 내 의도는 아니지만 내 만화가 학습적이라는 말은 싫지 않다. 요즘은 학습적이라고 해야 책이 팔린다. (웃음) 윤 화백은 광주비엔날레를 언급하며 ‘자대를 잘못 들이대면 안 된다’고 충고했다. 제1회 광주비엔날레 때 쿠바 작가의 작품(아이버리기 위하여)을 아무나 이해 못 하듯 서로의 영역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의미다. 반세기 붓을 잡은 그는 또 그 절반을 역

사에 심취해 살았다. 그동안 읽은 역사 관련 서적만 3000여 권에 달한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 집에서 본 역사책 한 권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리고 붓을 잡은 지 20년 만에 역사만화를 그리기 시작했고, 오십이 넘어 서군 관대에 다니면서 한학을 배웠다. 그는 “내 평생 고민인 못 배우고, 여자한테 인기없는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그렇게 됐다”라고 말했다. 역사와 한학에 관심이 많은 윤 화백은 ‘맹꽁이 서당’ 이름을 처음에는 공자와 맹자를 합친 ‘공맹 서당’이라고 지었다. 그런데 아이들이 ‘맹꽁맹꽁’ 장난삼아 부르는 것을 만화 제목으로

정했다. 맹꽁이 서당 첫호 스토리다. 어른으로, 또 만화가로 현 세태를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다. “나는 어디서 바른 소리를 못한다. 내가 약점이 더 많은 사람이다.(웃음) 경제는 성장했지만 사회는 거꾸로 가고 있다. 나는 주로 어린이 만화를 그렸는데, 근본적으로 아동교육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초등학교 2~3학년들에게 짧게나마 ‘명심보감’을 가르치면 그 배움이 평생 갈 것이다. 거거거 평생 오만방자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어른들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세월호도 그렇고, TV를 못 보겠다. 이제는 좀 생각을 했으면 한다.” “선생님 죄송한데, 맹꽁이 서당 캐릭터와 웃는 모습 등이 너무 닮았습니까”는 기자의 마지막 말에 윤 화백은 “결결결” 웃으며 “자연스레 닮을 수 밖에 없고, 그게 내 삶이죠”라고 답했다. 문의 061-330-3827. /김정민기자 kki@kwangju.co.kr



‘육망이라는 이름...’ 형제의 포장마차

24일 오후 7시 30분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

가진 것 하나 없는 형제가 있다. 소심한 형과 허풍쟁이 동생은 ‘꿈’을 이루기 위해 포장마차에서 순대장사를 시작하지만 이 역시 만만찮다. 두 형제의 돈 벌기는 과연 어떻게 될까.

극단 크리에이티브 드라마가 평범한 소시민들의 좌충우돌 희망 이야기 ‘육망이라는 이름의 마차’를 무대에 올린다. 24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

돈도 스펙도 없는 형제는 돈을 탈탈 털어 순대장사를 시작한다. 장사수완 하나 없는 형에 비해 입담 좋은 동생은 이런 저런 방법으로 손님을 모으려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작품은 두 형제의 이야기를 유머와 잔잔한 감동으로 풀어낸다.

형과 동생으로 이현씨와 정일행씨가 출연하며 양선영, 이상학씨가 간호사, 관리소장 등 1인 다역을 맡는다.

2014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광주시, 광주문화재단이 후원하고 있다. 관람료는 일반인 2만5000원, 청소년 1만5000원. 문의 062-521-755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김치준 작 ‘새 모양 미백’

느림을 말하고 여유를 담다

‘전라도찾그릇작가회’ 창립전 ... 30일까지 향토음식박물관

‘느림과 여유, 운유함이 담긴...’ 광주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은 오는 30일까지 박물관 1층 기획전실에서 ‘전라도찾그릇작가회(김치준) 창립전’을 개최한다.

전라도찾그릇작가회는 광주와 무등산, 전라도의 역사와 문화를 배경으로 흙 작업을 하고 있는 도예인 10명이 ‘무엇이 전라도다운 것인가’를 고민하기 위해 만든 단체로 전통 도자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시 참여 작가는 강현식(영광 불갑읍)·김기찬(보성 청광도예)·김락겸(담양 일여한공방)·김영철(담양 토인공방)·김지준(광주)·남태운(담양 시나위 공방)·송일근(담양 허허도예공방)·유영대(나주 남천요)·이치현(광주 흙이자기도예공방)·홍성일(보성 노산도방)씨 등이다.

작가들은 그동안 찻그릇의 형태와 쓰임새, 차살림에 이르기까지 많은 연구와 시도를 병행해왔다.

김치준 회장은 “찻그릇은 그릇이면서 동시에 예술이다”고 말했다. 문의 062-575-8883.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신축원룸매매 (전대2분)**

**전대상대2분**  
(미래로 아파트 용봉지구 코너)  
신축 4층 톨21개  
(1층 상가2칸, 4층 고급주택)  
엘리베이터 완비  
전면 대리석, 벽돌시공, 정남향  
월수익 880만(1년 1억500만)  
매가 12억(보익 융3억)  
수익률 12% 11억5천

②전대정문, 후문1분(신축4층12개)★  
1층 점포, 4층 고주책, 월수익 450만 매가 6억7천(보3천, 융1억2천)

③나주 이창동 원룸★  
룸 18개 월 550만 매가 4억3천(융1억2) 수익률 13%

★쌍촌역 오피스텔 매매(원룸형 투룸형현역2분)★  
원룸시설완비 울리모델링 전자제품 신규교체  
• 원룸형 (10평) 3천3백(보증금 200, 월27, 융1000)  
• 원룸형(11평) 매가 3천4백(보 200, 월 27, 융1000)  
★2채매입사★매가76천5백(매우2000만) 실투자 4500만  
(월수익 54만원) 수익률15%

(주)대신 ☎010-6670-9800, 062)952-5584

**수완지구**  
상가매매3층

수완지구3층(85평)  
매가3억5천  
모이엘가 APT입구  
5000세대  
최고위층 노후보장  
(학원, 사무실, 투자적합)  
(보3천 월190만 융2억5천)  
수익률 13%연 2400만원  
전용률 높음

**침단지구**  
상가매매2층

침단지구2층(62평)  
매가1억7천  
오션스파 임대  
보증금2천 월90만  
사무실 시설 완비됨  
(주인직접 사용자)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매·교환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감정가이하**

- 금매 광주은행본점 부근 대인동 대로변 649㎡(210)건물 522㎡(158)중시가지 11억6천 매도 11억
- 쌍촌역 인근고시원 대지 272㎡(87)건물 493㎡(149) 수익률 보증금 3천에 월 580천 연금생활에 적합 5억 2천
- 쌍촌동 치평중학교 부근 대지 386㎡(117) 건평 603㎡(183) 원룸과 투룸 19개 전세 1억3천 월500천 수익 5억2천
- 700만원에 이전해갈 생활주택부지 영암읍 도로점 1380㎡(417) 대출 1억2천 원룸 적합 700만원
- 동구 대지 542㎡(164)건물 3968㎡(1200)18억 2천
- 동구 예식장 대지 1924(582)건물 3287㎡(994)요양병원 등도 적합 감정 47억 3천 매도 27억 3천
- 담양군 대덕면 고속도로점 관리지역 8553㎡(2587)평탄 한땅 공장,창고특적합 대출 1억 6천 매도 2억 2500만원
- 시내 목욕탕과 여관동 대지 765㎡(231)건물 2529㎡(765) 감정 22억 대출없음 매도 13억
- 쌍촌역 4거리 나대지 377㎡(111)7억천
- 무인택시부지 나주시 송월동 상업지 1666㎡(504) 대출 13억천 매도 은행 인수하고 9천만원
- 영암읍 APT와 생활주택 112세대 허가난방 4615㎡(1396) 은행 3억2천 매도,교환 6억3천
- 쌍촌동 5.18공원 건너편 원룸촌 대지 198㎡ 건물 453㎡(137) 1층 가게와 안길, 원룸 15개 5억천
- 원룸, 생활주택부지 쌍촌동 1층 주차지 2236㎡(676) 대출 8억6천 매도 13억

**임대·투자·교환**

- 쌍촌동 원룸 건물 대지 222㎡(67) 건물 330㎡(100) 운전역 1분거리 보증금 2천천 월 300천수익 매도3억천
- 신안동 상업지 333㎡원룸 등 적합 3억 2천
- 남구 사동 사적공원 10월 준공예정인 생활주택 85㎡ 은행 1억5천천 생활여건 좋음 2억3천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쌍촌동 (구) 등기소 자리, 가도 생활주택 전사관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상가/건물**

- ▶ 화정동 교원공제부근 1층상가 225㎡ 매 12억(보1.3억, 월600만 유영프랜차이즈 입점)
- ▶ 북구 신용동 유치원 건물 매매 23억
- ▶ 광산구 신창동 4층건물 매매 27억(보4.1억 월1,240만)
- ▶ 서구 풍양동 대로변 3층건물 매 10억(보5천,월520만조합)
- ▶ 서구 치평동 5층건물 매매 40억 (보4억 월2,000만)
- ▶ 광산구 수평지구 상가건물 매매 110억

**대지/전답**

- ▶ 북구 용두동 1중주거지역 답 1,990㎡ 매매 6억 6천
- ▶ 서구 쌍촌동 대로변 주차지역 대지 760㎡ 매매 16억
- ▶ 남구 주월동 대지 2,290㎡ 매매54억(병원최적)
- ▶ 북구 용두동 생산농지 답 5,000㎡ 매매 12억(창고적합)
- ▶ 북구 용전동 생산농지 답 7,900㎡ 매매 29억(4거리코너)
- ▶ 광산구 신창동 생산농지 답 2,000㎡ 매매 6억5천
- ▶ 광산구 대산동 계획관리지역 29,800㎡ 매매39억
- ▶ 서구 마북동 생산농지 답 5,400㎡ 매매 20억
- ▶ 담양군 월산면 잡종지 29,800㎡ 매매 16억
- ▶ 세하동 청고 1,590㎡(건234㎡) 매매 7.2억
- ▶ 벽진동 청고 730㎡ 임대 보 5천 월 450만

광주 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원형

상무지구 우리병원 ~ 세정아울렛 사이  
☎ 010-5536-0382 062) 373-0382

**저렴한 고급 별장**

**정남진 별장은?**  
접근성, 주변 환경, 천혜의 경관이 어울린 고급 수입 목재를 활용한 건축물로 남해안 최고의 별장! 광주에서 50분 거리에 소재한 정남진 별장은 위의 조건을 완벽히 갖춘 곳!

토지 4,900㎡  
건물 245㎡  
매가 협의

- ◆ 정남진 장점, 특량만 해변가 환상적인 드라이브코스 선착장과 해수욕장, 바다낚시, 리조트 등 최고의 위락시설과 어울린 명소에
- ◆ 캐나다산 수입 목재 건축물(100%)에 수입 창호 등 최고급 자재 및 완벽한 단열, 방음, 방습 및 내부공기 자동 배출 방식의 숨쉬는 별장.
- ◆ 완벽한 보안시스템 구축.
- ◆ 정남진 별장은 전원주택이 아닙니다.

전화상담 사절.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 내방 바랍니다.

행운(구.대창)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송창석  
011-642-7777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500만원정도  
토지 가격 만도  
7억5천만원정도

매매가격  
8억8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